



As we approach the end of our final year of high school at Bay View, I feel saddened by the fact that every day is the last day we will ever experience as a Bay View student. However, I know that I will be able to find a way to cope, because my past days at Bay View were full of unforgettable moments. Wherever I go after the graduation, these memories will always remain in my mind. For international students like me, it wouldn't have been easy to adjust to a new culture if it weren't the wonderful Bay View girls and faculty who were willing to accept me as one of them with warmth and kindness, despite the cultural differences. Because of them, I was able to immediately assimilate

into the Bay View community. I know that after June 7th of 2010, I will have to move on from Bay View to the next stage of my life. I will no longer be able to sit in my favorite English class, discovering new perspectives that my peers have on *Hamlet* as oppose to what I have attained from the Korean version. I also realize that I won't be able to stand on the court as a member of Bay View Volleyball team. I will never forget the valuable lessons I have learned and the people I have met at Bay View, because they have changed me for the better and helped me to become who I am today.

졸업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하루하루의 시간이 베이뷰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에 저는 왠지 기분이 시원섭섭합니다. 그러나, 베이뷰에서 보낸 지난 2년동안 잊지못할 경험과 추억들이 있었기때문에 저는 이 슬픔을 곧 극복할수있을거라 믿습니다.제가 졸업을 한 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있을지 아직 불투명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어디에 있던 베이뷰에서 보냈던 추억들은 항상 저와 함께있으리라고. 저는 따뜻하고 친절하 베이뷰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시간안에 다른 문화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험에 적응할수있었습니다. 이번년 6월 7일이 지나면 저는 분명 베이뷰를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공부를 해야할것입니다. 더이상 제가 좋아하는 영어 시간에 앉아서 햄릿에대한 제 동료들의 새로운 관점을 듣지 못할것입니다. 또한, 베이뷰의 대표로써 배구팀에서 활약을 하지도 못할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동안 베이뷰에서 보낸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 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졸업후에도 제가 어디에있던, 저는 항상 베이뷰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것입니다.



Written by So Youn Kweon '10